

본지 선정 '2001년 불교계 10대 뉴스'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는 것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해인사 대불 조성 논란은 대형불사를 지향해온 우리의 자화상을 반조하듯 보여주었다. 또 올해 유난히 비자정문화재의 도난이 많아 문화재 보

호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 두드러진 성과가 많았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조계종이 명실상부한 불·재가 교육체계를 확립했고, 불교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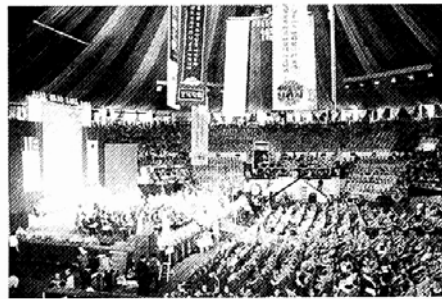
으며, 37년 만에 한글대장경이 완공됐다. 모두가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또 공무원 불자회의 잇따른 창립등 적극적인 불자회의 활발한 실행은 불교의 활기찬 미래를 엿보기에 충분했다.

● 한글대장경 37년만에 완간

동국역경원이 37년간 진행해온 대규모 역경불사의 결과 한글대장경 318권이 완간됐다.

동국역경원(원장 율운스님)이 1964년 설립되면서 <장아함경>을 첫 권으로 펴낸 이후 37년 만인 9월 5일 장중체육관에서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한글대장경은 해인사 고리대장경 전체를 번역하고 율운에서 초록에 이르기까지 한국고승의 저자물 150여종과 팔리어경전 가운데서 뽑은 100여종을 포함한 우리시대의 대장경이다.

동국역경원과 현대불교신문사는 한글대장경입기 및 봉안하기 캠페인을 전개해 대장경 실행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9월5일 장중체육관에서 열린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 불교환경운동 활발

지난 4월 불교계가 주도한 반대어른으로 지리산담과 가야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가야-봉산 구간의 도로(국가지리지방도 59호)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는 쾌거를 이뤘다. 불교계가 주도해 온 북한산 관동 고속순환도로 백지화 운동과 새만금 갯벌 개발 반대 운동 등이 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 10대 뉴스에 선정된 것도 불교환경운동의 외연이 확대된 성과다. 실상사가 환경농업교육장을 준공하고, 불영사와 내원사가 속사담 건설 반대 및 천성산 살리기 운동에 성과를 얻어낸 것도 지역 사람들의 대외적 활동력을 보여 준 의미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성과는 지난 9월 불교환경연대를 창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념들이 가야산국립공원 관동도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공무원불자회 급성장

1년 전 47개 불자회의 연합회로 출발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10월 7일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기점으로 160여 불자회가 소속된 전국 규모의 직장직능 단체로 성장했다. 공무원 조직상 스스로 불자라고 드러내길 꺼려하고 불자회 결성도 매우 힘들었던 것이 불과 1년 전의 모습임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변화다.

또한 전국경찰불교회, 철도청불교협의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등의 회원 및 지부도 크게 늘었다. 이중 전국경찰불교회는 4월 창립 이후 50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경찰회를 조직했고, 철도청불교협의회는 지난 9월 철도청 본사에 불자회를 결성했다.



◇10월7일 직지사서 열린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1주년법회.

●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 발족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였던 비자정문화재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본청과 14개 지방경찰청, 230개 경찰서별로 각각 1명씩 모두 245명의 문화재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7월 12일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비자정문화재 도난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도 개정하여 마련했다. 사찰소재 비자정문화재 보호를 위해 불교계 등에서 요구해 온 은닉 보관 행위의 범죄 처벌, 은닉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지정문화재에 한해 민법상 선의취득 적용 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광위에서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재지킴이 발족식에 참가한 스님과 경찰들.

● 조계종 출·재가 교육체계 확립

사상 처음으로 3급 승가고시가 실시되고 신도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조계종단의 명실상부한 불·재가 교육체계가 갖춰졌다.

10월 29일부터 4박5일간 직지사서 치러진 3급 승가고시는 승가교육체계와 승려위계 확립을 통해 수행풍토를 바로잡는 단초를 마련했다.

11월 13일 조계종이 선포한 '신도교육 의무화' 역시 기본-전문-지도자-재교육의 교육체계를 통해 신도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신도교육의 이정표를 세웠다.

내년부터 불교에 입문하는 모든 불자는 의무적으로 기본교육을 받아야만 수계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포교사고시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이 가사를 수여받고 있다.



◇개종식에서 합장하고 있는 인도 불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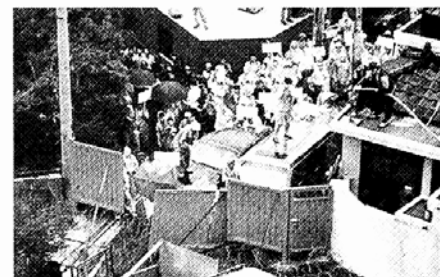
◇관계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는 조계종과 선학원.



◇11월30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군불교위원회 출범식.



◇중앙신도회 주최로 열린 '21세기불사방향모색' 세미나.



◇총무원 청사에서 맞서고 있는 비상대책회의측과 총무원 측.

● 인도 힌두교도 1만명 개종

11월 4일 인도 뉴델리시 암베드카르 회관에서 '로드 붓다 클럽' 주최로 열린 '대 개종식'에서는 불자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힌두교 불자 개종 1만여명이 불자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56년 열린 현대 인도불교의 아버지 암베드카르 박사의 개종식에 이어 45년 만의 대규모 개종 사건으로 인도 불교중흥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개종식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분야에까지 확산되는 등 인도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로드 붓다 클럽' 대표 우디프 라즈는 힌두 원리주의 단체들의 방해로 개종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90만여명의 불개종자들을 위해 지역별로 개종식을 거행하고 있다.

● 조계종-선학원 관계정상화

23년 만에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졌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8월 30일 회의를 열고, 조계종 총지부대, 승적·교육·수계 제한 해제 등 6개항의 관계 정상화 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78년 선학원이 '입원은 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고 정관을 개정하며 파생된 조계종과 선학원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됨은 물론 양측이 한 뿌리임을 재확인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정상화는 조계종이 선학원 승려의 승적·교육·수계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선학원도 조계종과 별도로 가졌던 금강계단 설치와 승려법 계단법을 제정하는 등의 막다른 상황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다.

● 군포교 전담 군불교위원회 출범

군불교를 전담하는 종단의 공식 기구인 군불교위원회가 11월30일 대전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조직된 군불교위원회는 군불교 전반에 관한 행정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신하에 상임회의 및 실무운영회의를 설치해 군 포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에 군부사들은 예산확보나 후원회 조직 및 제반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어,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이번 군불교위원회의 탄생은 군승단 창설 33년 만에 처음으로 종단 산하에 군 포교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향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 포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해인사 청동대불 논란

6월 해인사가 세계 최대 청동좌불 조성 계획을 밝히자 본지가 문제를 제기하고, 수경스님이 '성철 지운스님의 죽음을 곡한다' 제목의 기고문을 본지에 내면서 대불조성논란이 일반 사회까지 확산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해인사 선방 수좌들의 실상사 소송으로 대불 논란은 종단 폭력문제로까지 비화돼 종단내 고질적 폭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온 대불불사에 대해 비판이 거세졌다.

3개월여 시간의 이목이 쏠렸던 이 문제는 결국 해인사의 대불계획 재검토 발표로 종결됐지만, 외화내인의 대형불사를 지양하고 시대에 맞는 인재 복지 불사문화를 세우야 한다는 불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태고종 최악의 분규 격어

태고종의 내분이 일년내내 계속되어 불교계의 종편 다름과 분규에 신물을 내린 불자들에게 '태고종까지...'하는 엄청난 실망을 주었다. 내분의 시작은 제19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던 종연스님에 대한 자격서비였지만 실은 태고종을 움직이는 세칭 '7인방' 스님들의 대립과 갈등이 팽팽하게 세를 이루면서 내분이 장기화됐다. 지난 3월 종연스님과 법장스님의 동반사퇴와 해초스님의 총무원장 추대로 해결이 보였으나 해초가 인사문제가 영기면서 더 깊은 갈등으로 변질되며 마침내 비상대책회의의 촉이 따로 총무원을 개원, 1종단 2총무원이 됐다. 실질적으로 양분돼 각각의 중무를 운영하던 태고종은 지난 11월 27일 운산스님이 새로 총무원장이 되면서 화합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전법인을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0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권기종(동국대교수)·최종식(동국대교수)·인환스님(동국대교수) ·윤일수(문화재전문위원)·김로귀(동국대교수)·홍석스님(승가대교수)·한정성(금강선원이사장) ·신진규법사·최봉수(동국대교수)·주명원(동국대교수)·오국근(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경도사상·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암도스님(전교원장)·정병호(동국대교수)·김상현(동국대교수)·김상영(승가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차차석(동국대교수)·장희우(동국대교수)·문윤식(동국대교수) ·원단준(동국대교수)·박종(동산대교수)·보각스님(승가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 (200명) (성균관·추진반·봉산반)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우리춤과 (30명) · 한문학과 (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12월 10일 ~ 2002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성균관)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추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우리춤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학일시 2002년 2월 2일(토) 오후5시(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림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림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림센터 064)749-4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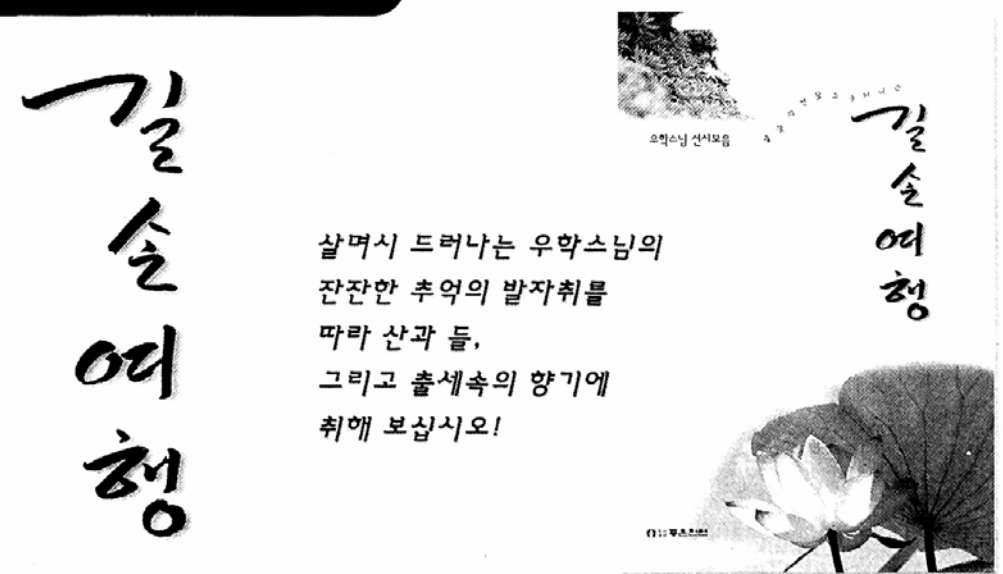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베스트셀러 도서출판 좋은인연 TEL - 053)475-3707 FAX - 053)475-3706 E-mail - buddhabook@hanmail.net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의 또 다른 수행선시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질 장면장면을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도 선명한 글로 표현한 이 책은 수 년 간에 걸쳐 집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산과 들을 헤매며 찍은 생생한 들꽃과 연꽃이 책 속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단 아하하면서도 화려한 연꽃, 흔히 볼 수 없었던 한국의 야생화가 스님의 문체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15x22cm/208페이지/정가 10,000원 하드커버 양장제본, 전면 올 칼라

우학스님의 선시 낭송 테이프 발매중 (문의 053)474-8229